



즉시 배포용: 2020년 9월 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부재자 투표 포털이 현재 운영 중이며 직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

모든 등록된 뉴욕 유권자들은 [여기](#)에서 투표용지 요청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부재자 투표 포털** 운영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여기에서 직접 11월 3일 선거의 부재자 투표 용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를 통해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노출 위험에 대해 우려하는 모든 유권자가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월 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는 많은 유권자가 팬데믹에 취약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투표권을 더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대담한 개정을 단행했으며, 오늘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있는 모든 등록 유권자가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 운영을 시작합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우리는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다고 느끼며, 실제로 안전한 방식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달 Cuomo 주지사는 **전면적인 선거 개혁** 법안에 서명하여 11월에 뉴욕 주민들이 더 쉽게 투표하고 집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조치에는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Board of Elections)에 즉시 제출할 수 있어, 코로나19 등의 질병에 대한 위험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유권자가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도록 허가하고 선거일 당일 또는 전일에 소인을 찍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인 없이 선거일 다음 날에 수령한 모든 부재자 투표용지는 집계되도록 합니다. 선거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우편으로 발송되었음을 보여주는 소인이 있는 투표용지는 11월 10일까지 접수된 경우 집계됩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 주민의 투표권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선포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다가오는 기한을 알리고, 다가오는 선거에 대비하고, 부재자 투표가 모든 선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